

양고기일일시장뉴스 (2026.10.12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호주 / 뉴질랜드

오늘의 핵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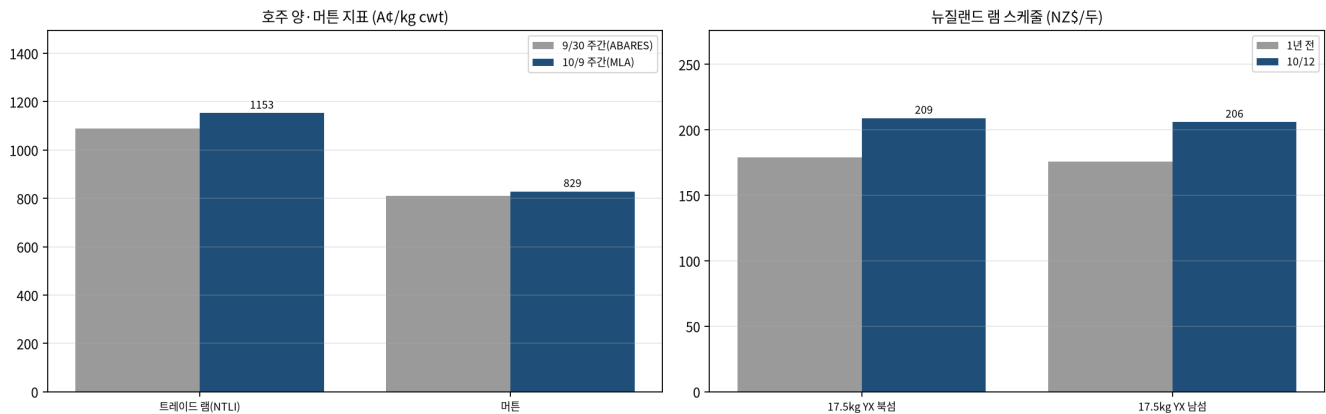
- 1. 호주 무역용 양 지표(NTLI)는 10/9 주간 1,153¢/kg로 5% 반등했고, 머튼 지표도 829¢/kg(+3%)로 올랐습니다. 주말 동안 신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.
- 2. 반면 서호주(WA) 양값은 656¢/kg로 전년보다 낮습니다. 가공장 처리 물량이 주 5만 두 가까이 많은데도 가격이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.
- 3. 뉴질랜드 양 스케줄(17.5kg YX)은 10/12 기준 북섬 NZ\$209, 남섬 NZ\$206/두로 보합이고, 1년 전보다 약 17% 높습니다.
- 4. 미국 ITC는 11월 13일까지 수입 양고기의 산업 피해 여부를 판정합니다. 호주·뉴질랜드산 양고기의 미국 관세가 최대 변수입니다.
- 5. 중국의 상반기 양고기 수입은 16.99만 톤(-20.2%)으로 줄었지만, 6월 수입단가는 톤당 US\$5,004(+29.4%)로 2023년 이후 최고입니다.

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산지 경매가, 가공업체 스케줄, 국제 수입단가, 국내 도매 호가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호주	무역용 양 지표 NTLI (10/9 주간)	1,153 A¢/kg cwt	전주 +5%, 10/12 신규 발표 없음	MLA 주간 상황
호주	머튼 지표 (10/9 주간)	829 A¢/kg cwt	전주 +3%	MLA 주간 상황
호주	발라랏 양 평균 (10/9 주간)	1,226 A¢/kg cwt	확인 불가	MLA 주간 상황
호주	WA / SA 양·램 평균 (10/9 주간)	656 / 773 A¢/kg cwt	전년보다 낮음	MLA 주간 상황
호주	트레이드 램 일간 지표 (10/6)	A\$11.32/kg	+1.4%	agri.markets
호주	NTLI (9/30 주간, ABARES)	1,088 A¢/kg cwt	신규 발표 없음	ABARES
뉴질랜드	양 스케줄 17.5kg YX 북섬 (10/12)	NZ\$209/두	4주 전 209, 1년 전 179	interest.co.nz
뉴질랜드	양 스케줄 17.5kg YX 남섬 (10/12)	NZ\$206/두	4주 전 205, 1년 전 176	interest.co.nz
뉴질랜드	B+LNZ 2026-27 양 연평균 전망	NZ\$207/두 (NZ\$10.67/kg CW)	전 시즌 225 대비 -8.0%	Beef+Lamb NZ
뉴질랜드	Westpac 양고기 가격지수 (10/7)	686	12월 681 전망	Westpac Agri Bites
중국	양고기 수입단가 (6월)	US\$5,004/톤	전년 +29.4%	Bloom Global
한국	호주산 양갈비살 스위트 / 어깨살 플래처 도매 호가	22,000 / 17,900원/kg	확인 불가	수입육거래소

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

자료: [ABARES](#), [MLA 주간 시황](#), [interest.co.nz](#)

국가별 주요 뉴스

호주

- 이번 주 양 출하는 132,260두로 15.6% 줄었고, 양 도축은 372,398두로 6% 늘었습니다. 비가 내리면서 재입식 수요가 강해졌습니다 ([MLA 주간 시황](#)).
- 서호주 양값은 가공장 처리 물량이 많은데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. 출하 방식이 경매장 밖 직거래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([Ground News](#)).
- ANZ는 호주산 양고기 수출이 전년보다 약 11% 적지만, 국제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 근처에서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([ANZ](#)).

뉴질랜드

- 뉴질랜드 육류업계는 워싱턴 ITC 공청회에서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. ITC는 11/13까지 피해 여부를 판정합니다 ([Farmers Weekly NZ](#)).
- B+LNZ는 2026-27 시즌 양고기 수출액이 44.1억 달러로 5.9% 줄고, 가격은 3.6%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([Beef+Lamb NZ](#)).
- 6월 결산 연도 식품·섬유 수출은 652억 뉴질랜드달러로 사상 최고였습니다 ([Xinhua](#)).

참고: 주요 수요국

- 중국의 6월 양고기 수입은 31,308톤(+7.7%)이었고, 수입단가는 18개월 연속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([Bloom Global](#)).

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미국 ITC 판정(11/13 전후)이 4분기 최대 변수입니다. 관세가 오르면 호주·뉴질랜드산 대미 물량이 아시아로 돌아 한국 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. 대량 계약은 판정 뒤로 미루고 당장 필요한 물량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호주산은 동부 지표가 5% 반등해 단기 오퍼 인하 기대는 줄었습니다. 다만 서호주산은 약세여서, 서호주 가공장 물량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뉴질랜드산은 스케줄이 전년보다 17% 높아, 판정 전까지는 강세 오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

한 줄 요약

호주 동부와 뉴질랜드 양값은 강세지만 서호주는 약세입니다. 미국 ITC 판정(11/13)을 앞두고 계약 시기를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.